<경쟁'94 :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1994년 한해동안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줄을 이어 일상생활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삶을 만끽하고자 하는 소시민들에게 충격과 아픔을 던져주었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연방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 전쟁과 살육의 기운이 감돌고, 한국으로서는 30억달러의 채권을 포기해야 할런지도 모를 걱정을 안게 되었다.
동유럽의 옛유고도 티토의 죽음과 동서냉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분오열, 민족간·종교간 분쟁이 끊임없고 아마도 세르비아의 힘에 보스니아가 굴복하는 힘의 논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뿐이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아와 전쟁과 민족분쟁이 끊이지 않고, 중남미에서도 미국의 힘에 반기를 든 약소국들의 제목소리와 강자의 도덕성(?)을 앞세운 총칼이 쇠소리를 내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일반국민들의 삶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국제적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맞부딪쳤던 40여년동안의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믿었던 약소국민과 소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겠으나 사실은 국제질서가 힘을 바탕으로 한 국가와 민족 및 최근들어 고개를 들고 있는 지역적 고립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을 뿐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한국이라는 국가도 힘을 길러야 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힘에 의한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의 정신력일 것이다.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투철한 의지와 철두철미한 절제의식, 내나라 내국토를 내힘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애국심이 국력의 척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겉으로는 애국을 부르짖고 나라사랑을 외치지만, 사실은 국가와 민족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우선 내자신과 내가족의 행복과 편안함이 최고인, 그래서 8000달러를 밑도는 나라의 도시는 어느 곳이나 하루종일 교통체증에 시달려
야 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온나라가 길이 막혀「교통지옥」을 되뇌이고 또 되뇌여야 하는 국민을 품에 안은 나라인 것이다.
그 뿐인가. 한 집 건너 식당이고 다방이며, 돈께나 있는 집 애들은「X」와「야타」를 밥먹듯 외쳐대고, 20대의 무위도식꾼들이 「그랜져」가 부족해「BMW」와「벤쯔」를 몰고 다니지 않는가. 반만년동안「먹고 노는」것에 이력이 날만도 하겠건만 20 00년이 턱밑에 와있고, 세계가 한지붕이라는 오늘에 와서도 그저「띵까띵까」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나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한 댓가를 얻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풍요를 누릴 생각은 전혀없고, 세금을 도적질하고 주변을 속여 사기와 사취에만 골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백의민족」이 아니라 「사기꾼집단」의 광란의 소용돌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이비 종교집단의「광란」의 몸짓을 우리는 일상생활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게도 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아야 할 정부조직 개편이 몇몇 조무라기들의 손에서 요리되고,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 죄스럽지도 않은지 조직의 축소개편에는 눈알을 부라린다. 책상에 턱괴고 기업을 불러「술사라 밥사라 용돈내라」는 당연지사이고, 그것이 미운지 -미운 놈에게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처럼-「그 시늉」잘하는 기업에게는 별의별 특혜가 다 주어진다.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해 온 국민이 살얼음을 걷고 있어도 책임지는 자 하나 없고, 고작해야 조무라기 몇명의 철창행으로 끝나지 않던가.「고위」는「고위끼리」통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고위」를「고위」로 만들어준 것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니던가.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힘」의 수단이요 방법인 경제와 산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세계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겠는가. 국가경쟁력은 자연스레 커가는 것이 아님을 언제나 터득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몇점인가?

<화학저널 1994/12/26>